

薛己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朴載正·尹暢烈

關於薛己之生涯及醫學思想的研究

朴載正·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通過對明代著名醫家，溫補派創始者薛己(1487~1559)的生涯和醫學思想，得出如下結論：

薛己生於醫學世家，從小學習儒學和醫學，其父死後，替父進入太醫院成了醫士，之後先後歷任太醫院吏目，南京太醫院院判，院使等職，並於1540年(44歲)棄官回鄉，專心於治療患者與著述。薛己的著作大部分內容以醫案形式書寫，其內容包含內科，外科，婦產科，小兒科，鍼灸科，齒科，眼科，骨科，本草等。其本人親自著述的有以『內科摘要』為始約12種，校注的有以『婦人大全良方』為始8種，校勘的醫書約有6種，共計大約有26種之多。

薛己受『內經』，『難經』及張元素和金元四大家的影響較深。在四大家中，尤其受東垣和丹溪的影響最深。此外，可知其受校注醫書的影響亦較大，其通過博覽群書，大膽實踐，廣收資料，善于總結，最終成了一名醫家。薛己受李東垣『脾胃論』的影響，強調脾胃的重要性，并首次提出脾統血的理論。其與李東垣的學說不同之處是，在治療火衰土弱型虛寒證時，主張以補火生土之法來治療，認為脾與腎的生理作用互為關聯，脾土化生精微，以滋養腎與命門。反過來，腎與命門亦對脾土起溫煦作用；而在病理方面，脾土久虛，可致腎虛，腎虛則不能生土，亦可致脾虛。薛己積極反對明代醫家受金元之遺風，以寒涼藥攻下，或濫用知柏以降火，克伐生氣的作法，而主張用偏溫的藥物進行調補，其常用的前人處方有補中益氣湯，四物湯，四君子湯，六君子湯，獨參湯，參附湯，六味丸，八味丸，腎氣丸，回陽湯，當歸補血湯等。

關鍵詞：薛己，溫補派，『內科摘要』，滋養腎與命門。

1. 緒論

薛己(1487~1559)는 명나라 中葉의 저명한 溫補派 醫家이다. 薛己는 世醫出身으로 그의 부친인 薛鎧는 당시의 名醫로 太醫院에서 任職하였고 小兒科에 精通한 醫家였다.

薛己는 家學을 이어 받아 처음에는 瘍醫가 되었으나 후에 內科를 위시하여 臨床 各科에 精通하였다. 그도 처음에는 太醫院에 들어가 醫士, 吏目, 南京太醫院 院判, 院使 등을 歷任하고 44세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患者診療와 著述에 몰두하다가 1559년 73세의 나이로 卒하였다. 그는 실질적으로 明代이후 盛行한 溫補學派의 創始者라고 말할 수 있다. 溫補學派란 脾胃과 命門 水火의 生理特性和 病理的 變化를 연구하여 治法

* 交信著者：尹暢烈，大田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042) 280-2601, yooncy@dju.ac.kr.

에 있어 溫陽과 補虛를 爲主로 하는 醫學流派를 말하며 중국의 南方에서 盛行하였다. 溫補學派의 형성의 원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言及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易水學派의 영향을 받아 인체에서 臟腑를 중시하고 특히 腎과 命門의 水火機能을 중시한 것이다. 둘째 明나라의 時代의 배경에 起因한 것으로써 金元時代의 시대적 混亂을 지나 사회가 안정되어 農業生産의 증대, 商工業의 발달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향상되어 부자들은 補益하여 오래 살기를 求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脾胃虧損한 경우가 많아 溫陽補虛를 필요로 했다. 셋째 金元時代의 劉河間과 朱丹溪의 의학이 널리 전파된 이후 明代에 들어와 一部の 醫家들은 그들의 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걸핏하면 寒涼한 藥物을 濫用하여 脾胃를 損傷하고 腎陽을 克伐하였다. 溫補學派들은 “腎臟과 命門의 眞陽과 眞水는 생명의 지극한 보배로 늘 保護하고 補陽해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공격하여 치는 것을 濫用한단 말인가”라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腎命門水火學說을 크게 부르짖고 溫補腎陽이 養生과 疾病豫防에 필수적임을 힘써 主張하면서 寒涼한 藥을 過用하여 인체를 해치는 것을 反對하였다.¹⁾

薛己는 張元素의 臟腑辨證과 李杲의 脾胃論에 根據하여 脾胃生理病變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한편 李杲의 學說에 따라 脾胃虛損病證을 치료할 때 補中益氣湯을 爲主로 하면서 四君子湯이나 六君子湯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薛己는 王冰과 錢乙의 學說을 이어 받아 腎中水火 및 脾胃腎의 關係를 重視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그의 醫案中에는 六味, 八味丸을 많이 사용하였다. 더욱이 補中益氣湯과 地黃丸을 合用하는 것이 자주 보이는데 脾胃를 동시에 重視하였기 때문이다.薛己는 당시에 寒涼한 藥으로 攻伐함을 심히 개탄하여 “世以脾虛를 誤爲腎虛하여 輒用黃耆知母之類면 反傷胃中生氣하여 害人多矣라”²⁾고 비판하였

다. 『四庫全書』에서는 “己治病多用古方而出入加減에 具有至理하니 多在一二味間하야 見神妙變化之巧라 厥後趙獻可作 醫貫하야 執其成法하야 遂以八味六味로 通治各病하고 甚至以六味丸으로 治傷寒之渴하야 膠柱鼓瑟하니 流弊遂多라 徐大椿(靈胎)因集矢於薛氏나 其實非己本旨니 不得以李斯之故로 歸罪荀卿也라(설기는 병을 치료할 때 고방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감을 함에 지극한 이치가 갖추어져 있었으니 흔히 한두 가지 약미사에서 신묘한 변화의 교묘함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조헌가가 의관을 지어 설기의 성법에 집착하여 드디어 팔미환, 육미환으로 모든 병을 통치하고 심지어는 육미환으로 상한의 갈증까지 치료하여 변통을 제대로 못했으니 폐단이 드디어 많게 되었다. 서대춘이 이 때문에 설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을 했으나 그 사실상 설기의 본 뜻이 아니니 이사의 실수 때문에 순자에게 죄를 돌려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³⁾고 하여 後世 溫補學家의 실수를 薛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를 옹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처방을 쓰는 傾向은 溫補派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溫補派의 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薛己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그의 생애와 저서 및 학술사상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2. 薛己의 生涯

薛己의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明나라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市)사람으로 1487年(明·成化23년)에 태어나서 1559年(明·嘉靖 38年)에 卒하였다. 그는 醫學世家 出身으로 그의 아버지는 薛鏗이고 字는 良武인데 醫術에 정통하여 治病에 奇中(기이하게 적중하여 잘 치료함)이 많았으며 특히 小兒科와 外科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薛鏗는 弘治年間(1488~1505)에 太醫院에 들어가 太醫院 醫士가 되었고 후에 院使로 까지 승진하였

1) 孟雄在等譯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大成醫學社 2001. p. 282

2) 薛己, 薛氏醫案選下冊, 內科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

3) 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p. 873.

으나 크게 重視를 받지는 못한 듯하다. 薛己는 이를 몹시 한탄하였는데 顧夢圭는 『本草發揮』序에서 “新甫每云及乃父抱藝不售 歿于京師 輒歎戲痛念(설기는 매양 아버지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크게 쓰이지 못하고 북경에서 돌아가신 것을 언급할 때마다 흐느끼면서 몹시 슬퍼하였다)”⁴⁾이라고 하였다. 설기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학문을 연마하였다. 처음에는 金憲 高如齋를 스승으로 모시고 儒學을 공부하여 과거에 여러번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다. 뒤에 이를 바꾸어 醫學을 학습하였는데 性品이 빼어나고 특이하여 눈에 지나간 것은 문득 외울 수가 있었다. 그는 家學을 계승하여 처음에는 瘍醫(外科醫)가 되었다가 뒤에 內科, 小兒科 등을 연구하여各科에 두루 정통하였다.

22歲(正德 3年, 1508年)때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를 대신하여 太醫院 醫士가 되었다. 북경 근교의 관청에서 근무하며 심사를 하기도 하고 公事로써 요새인 居庸關에 머물기도 했다. 일찍이 수레가 뒤집혀 부상을 당한 7명을 보았는데 땅에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었다. 설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뜨거운 童便으로 씻게 하자 모두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다. 2년 뒤(24세, 1510년) 처음의 시험에서 만점인 上等을 얻었으며 25歲(정덕 6년, 1511년)때는 太醫院 吏目으로 특별히 발탁되어 승진하였다. 이해 仲夏(음력 5월)에 錦衣衛의 掌堂으로 있는 劉廷器가 腹部에 癰이 있어 潰破되어 묶은 고름이 나오고 發熱, 口渴, 腹脹하며 嘔吐 不欲食하였다.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熱毒이 內攻한 것으로 치료하여 黃芩, 黃連, 大黃 등의 苦寒之劑를 두루 썼지만 병은 더욱 심하였다. 설기는 이를 보고 때(時)는 비록 한여름이지만 증상이 虛寒에 속하므로 마땅히 때를 버리고 증상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인삼, 황기, 건강, 부자 등의 약을 쓰니 一劑에 구토가 그치고 음식을 먹었으며 다시 托裏하는 약제들을 쓰자 치료가 되었다. 26세(정덕 7년, 1512년)때 무

거운 수레에 치어서 오랫동안 기절하였는데 깨어난 뒤에는 胸滿如築하고 氣息不通하였다. 이어서 뜨거운 童便을 한 사발 마시자 가슴이 시원하고 氣의 운행이 순조롭게 되었다. 그러나 小便을 볼 때 여전히 疼痛이 있었다. 同鄉의 徐銀台 東濠先生이 본 후, 復元活血湯 一劑를 주자 血便이 몇 되(升) 나오고 疼痛이 모두 사라졌으며 다시 血氣를 기르는 약을 복용하자 완전히 치료되었다.

28세(正德 9年, 1514年)때 두 번째 시험에서 上等의 성적을 얻어 御醫로 뽑혀서 승진하였다. 이해 7월 明나라 武宗을 위해 湯藥을 侍奉하다가 피로가 누적되고 음식을 제때에 먹지 못했으며 마음이 怒氣에 손상을 받았다. 다음해 봄, 莖中作痛하고 때때로 白津이 나왔으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급히 손으로 꼭 잡아야만 그치곤 하였다. 설기는 스스로 肝脾氣虛라고 진단을 하고 地黃丸 및 補中益氣湯加黃柏, 柴胡, 梔子, 茯苓, 木通 등을 복용하여 치료하였다.

30세(정덕 11년, 1516년)때 갑자기 惡心하고 大椎骨이 몹시 가렵고 잠시 후에는 팔도 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스스로 天疽의 위급한 병이라고 생각하였다. 급히 隔蒜灸法을 시행하니 가려움이 더욱 심하였다. 다시 50여장을 땀뜨니 가려움증이 드디어 그치고 10여일 만에 치료되었다.

33세(정덕 14년, 1519년)때 전체의 시험에서 上等을 얻자 승진하여 南京太醫院으로 전보되어 正六品院判을 역임하였다. 이때 설기의 어머니가 65세였는데 2월에 음식을 먹은 후에 우연히 밖에서 뜻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는 嘔吐酸水하고 內熱作渴하며 飲食不進하고 오직 冷水만을 마셨다. 설기가 진찰을 하니 氣口脈이 大而無倫하고 面色이 靑赤하였다. 이에 胃中の 濕熱이 울체되어 火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을 투여하니 입에 들어가자마자 곧 吐하였다. 뒤에 약을 바꾸어 黃連一味를 달여서 조금 차게하여 마시게 했고 점차 白朮, 白茯苓 등 健脾하는 藥을 가하여 천천히 調理를 하니 드디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42세(嘉靖 7年, 1528年)때 『外科發揮』 등 4종류의 外科學 著作을 刊行하고 滑壽의 『十四經發揮』

4) 裘沛然, 丁光迪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291.

3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8年(1529년) 『內科摘要』2卷 및 『癘瘍機要』3卷을 저술했고 아울러 采色繪圖 『敖氏傷寒金鏡錄』1卷을 校注 간행하였다. 嘉靖 9年(1530년, 44세) 年富力 강한 薛己는 奉正大夫 太醫院 院使 正五品에 이른 벼슬을 의연히 한가하고 안일하다고 하여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설기는 관직을 그만둔 후 “扶困起廢”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고 “庶光濟人”하는 것으로써 목적을 삼아 全心力으로 환자치료와 著述에 몰두하였다. 그는 民間에서 환자의 진료에 종사하면서 힘든 것을 사양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였으며 온 정력을 기울여 치료에 임하여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로 인해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에서 의사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가 지은 『外科發揮』 등 8종의 저작 중에는 거의 3000종류의 醫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장기간에 걸친 임상 결과물이었다. 임상에 열중하면서도 그는 群書를 博覽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항상 “蓬頭執卷 抽繹尋思(풀어진 머리로 책을 잡아 실마리를 뽑아내고 깊이 생각하다)”하였으며 조금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널리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總結을 加하여 각종의 전문서적을 저술했다. 嘉靖 11年(1532년, 46세) 倪維德的 『原機啓微』3卷을 校注하여 刊行하였다. 嘉靖 21年(1542년) 그의 나이 56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享年 88세였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그는 병을 얻어 齒縫에 脹이 생겼고 밤에 더욱 심하였다. 補中益氣湯을 복용한 후에 낮에는 비록 조금 누그러졌으나 밤에는 여전히 作脹하여 반드시 다음날 새벽이 되어야 비로소 완화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1년이 다 되어서 모든 齒牙와 四肢가 비로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정황 아래서도 그는 저술을 쉬지 않아 밤낮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嘉靖 24年(1545년, 59세) 『女科撮要』2卷, 『外科樞要』4卷을 완성하였다. 嘉靖 26年(1547년, 61세) 陳自明的 『婦人大全良方』24卷 및 『外科精要』3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28年(1549

년, 63세) 王綸의 『明醫雜著』6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29年(1550년, 64세) 陳文中的의 『小兒痘疹方論』1卷을 校注하였다. 嘉靖 30年(1551년, 65세) 錢乙의 『小兒藥證直訣』4卷을 校注하였다. 嘉靖 34年(1555년, 69세) 그의 아버지 薛鎧의 『保嬰撮要』20卷을 校注, 增補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38年(1559년) 설기는 瘍病(종기)으로 인해 卒하니 그의 나이 73세였다.⁵⁾

그의 死因에 대해 或者는 薛己가 瘍病으로 죽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 補法을 너무 고집한 결과라고 하였다. 沈啓源은 『外科樞要』序에서 “先生은 神于醫하고 而尤以瘍擅名하니 所爲諸瘍이 書甚具라 凡病癰腫, 癰疽, 疔瘡, 癩癧는 經先生診治면 亡不立已라 然卒因瘍死하니 故로 人多訾先生야야 以爲執泥補法야야 不知合變이라하니라.(선생은 치료에 귀신같았고 더욱 종기를 치료하는데 이름을 날렸으니 모든 종기에 대한 것은 책에 아주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무릇 음종, 응저, 연완, 누려의 병은 선생의 진단과 치료를 거치기만 하면 즉시 낫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러나 끝내 종기로 인해 돌아가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생께서 보법만을 너무 고집해서 合變을 알지 못했다고 비난한다.)”⁶⁾라고 하였다. 그의 의학사상을 계승한 제자로는 周大經과 朱慎齋가 있다.

3. 醫學著作

1) 薛己가 撰注한 醫書概要

薛己의 著作은 아주 多樣하며, 많은 內容이 醫案形式으로 쓰여졌는데 大部分이 그가 退職後에 故鄕으로 돌아가서 쓴 것이다. 그의 著書에는 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科, 鍼灸科, 齒科, 眼科, 整形外科, 本草學 등을 포함하며 內容이 極히 廣範圍하다. 著作은 大體로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5) 盛維忠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p. 1091~1092.

6) 薛己, 薛氏醫案選, 上冊, 外科樞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5.

첫째 種類는 薛己 本人의 著作으로서 『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樞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癰瘍機要』, 『女科撮要』, 『保嬰粹要』, 『口齒類要』, 『過秦新錄』, 『正體類要』, 『本草約言』 등이 있는데 『醫學指南』十卷은 『醫藏目錄』에는 이름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고 『嗣產法論』도 丹波元胤의 『醫籍考』에는 存在한다고 했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 種類는 그가 校注한 著作으로서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二十四卷, 『外科精要』三卷, 錢乙의 『小兒藥證直訣』三卷, 陳文中의 『小兒痘疹方論』一卷, 王綸의 『明醫雜著』六卷, 倪維德의 『原機啓微』三卷, 그의 부친 薛鑑가 쓴 『保嬰撮要』(保嬰全書라고도 한다.) 十卷 등 모두 二十卷이 되며, 이 외에 胡元慶의 『癰疽神秘灸經』도 있다. 薛己가 校注한 醫書는 單純하게 文章의 잘못을 校正하고 註解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臨床體得에 根據하여 醫案을 附着한 臨床經驗으로써 原著書의 內容을 評價하였으며, 또한 본인의 見解를 提出하여 自身의 學術思想을 闡述한 것이다. 예를 들면 『小兒藥證直訣』과 『明醫雜著』에 對한 校注는 잘못을 指摘한 것이 많고, 『原機啓微』에 對해서는 不足한 部分을 補充하였다. 薛己가 校注한 『婦人大全良方』은 『校注婦人良方』으로 불리어 지는데 『婦人大全良方』本 중에서 가장 널리 流傳되고 있는 版本이다. 薛己는 原書에 대량의 刪節과 增補를 하고 改訂, 校注를 加하여 이 冊을 완성하였다. 이 冊은 10門 24卷 280餘論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宋代 陳自明의 原書와 比較해 보면 빼버린 처방이 600餘首, 새로 추가한 처방이 260餘個이다. 醫案은 원서의 48例를 530餘例로 증가시켰으며 正文의 論述에 대해서도 大量으로 삭제를 시도하였다.⁷⁾ 이를 통해서 볼 때 그의 校注 作業은 거의 반은 創作에 가까운 힘든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種類로는 校勘한 著書로서 滑壽의 『十四經發揮』三卷, 杜本の 『敖氏傷寒金鏡錄』一卷,

陶華의 『癰疽神秘驗方』, 徐用誠의 『本草發揮』四卷 등 모두 九卷이 되며 이 외에도 朱震亨의 『平治會萃』, 馬宗素의 『傷寒鈔法』도 있다. 後世의 醫家는 그가 著述하고, 評價 및 校註한 冊들을 모아 『薛氏醫案』二十四種을 編輯하였다.

2) 著書의 版本狀況

이상의 여러 書籍들은 薛己가 살아 있던 그때 당시에 先後로 刊行되어 世上에 傳해졌다. 薛己의 著作들은 대개 綜述과 醫案을 混合하여 敘述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보통은 論證, 治療, 治驗의 順으로 되어 있다. 그가 校註한 책은 새로운 內容을 發揮를 한 바가 있어 後學들에게 좋은 參考가 된다. 後人들은 그가 編撰 著述하고 校註한 醫書를 모아 『家居醫錄』과 『薛氏醫案』을 成篇하여 明 萬曆年間에 刊行함으로써 널리 傳해진 바가 있었다. 현재 中國에 保存되어 있는 版本으로는 『薛氏醫案九種』과 『薛氏醫案十六種』 그리고 『薛氏醫案二十四種』 등이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이 成立된 後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는 일찍이 薛己가 著述한 책을 單行本으로 影印하거나 印刷出版하였다. 이 出版社에서는 또 『薛氏醫案』의 通行本을 바탕으로 하고, 기타 여덟 가지 版本을 선택하여 魚右山房刊本과 聚錦堂刊本을 根據로 삼아 互校 및 標點을 한 후에 『薛氏醫案選』이라 命名하고 1983年 4월에 出版하였다. 『薛氏醫案選』은 상하 두 卷으로 나뉘어 지는데, 上卷은 『外科發揮』, 『外科樞要』, 『癰瘍機要』, 『正體類要』 그리고 『口齒類要』를 함께 묶어서 만든 것이고, 下卷은 『內科摘要』, 『婦科撮要』, 『保嬰撮要』를 묶어서 만든 것이다.

3) 各 著書의 內容에 대한 簡介

① 『內科摘要』: 薛己가 1529年(嘉靖八年)에 쓴 冊으로서 모두 二卷으로 되었는데 飲食勞倦, 心腹作痛, 陽氣脫陷, 發熱, 吞酸, 噎腐, 停食, 痢疾, 咳嗽, 痰喘, 頭眩, 痰氣, 血燥, 結核, 瘧疾, 小便不

7)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2.

利, 肚腹膨脹, 暑濕所傷, 小便自遺, 淋瀝, 虛勞, 遺精, 吐血, 便血, 下部瘡腫, 大便秘結 等 內傷外感證의 論治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이 冊은 醫論과 醫案을 결부시켜 論述하였고, 病情의 推論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書名을 『內科摘要』라고 하였다. 이 책은 中의학에서 內科로 書名을 삼은 최초의 서적으로 中의학에서 內科의 개념을 正식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內科병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하였다. 病理的으로는 모두 脾胃, 肺, 肝, 腎의 虧損과 命門火衰를 爲主로 分析하였고, 治療에서는 淸 根源의 推究를 重視하여 六味地黃丸, 八味地黃丸 및 補中益氣湯을 主要方劑로 採用하였다. 이 冊에는 200餘個의 醫案이 包括되어 있는데, 每 하나의 醫案에 對해서는 모두 病因, 病機, 方用藥, 豫後 그리고 誤治 등에 對하여 論述하였는데, 辨證의 分析이 深刻하고 文字가 精巧하며, 比喩 비슷한 虧損의 病證이라도 서로 다른 治法을 提示하곤 하였다. 그리고 每卷의 뒤에는 各 病證에 使用되는 方劑를 附錄으로 실어 臨床에 參考가 되도록 하고 있다. 冊中에는 理論의 論述이 明白하고, 醫案들은 모두 臨床治療의 檢定을 받은 것으로 充分한 參考價値가 있다. 後世의 黃承昊(履素)는 薛己가 쓴 『內科摘要』와 校註한 『明醫雜著』를 編纂하여 『醫宗撮要』(別稱 『醫宗摘要』)라고 하였는데, 比較的 널리 流轉되었다.

② 『外科發揮』: 薛己가 1528년(嘉靖七年)에 간행한 冊으로 八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腫瘍, 潰瘍, 發背, 腦疽, 肺痿, 癩癧, 咽喉, 楊梅瘡 등 31개 種類의 外科疾患을 治療하는 經驗的 醫案을 論述하였다. 각각의 醫案마다 앞부분은 治療原則을 簡約하게 論述하고, 뒷부분에는 治療方劑를 附着시켜 文字가 簡單明瞭하여 實際臨床應用에 適合하게 著述되어 있다.

③ 『外科樞要』: 1571년에 간행되었으며(1545년에 완성) 4卷으로 되어 있는데, 第1卷은 瘡瘍에 對한 21篇의 證候辨證을 記錄하였고, 第2~3卷은 病證을 綱目으로 삼아 全身 各 部位 30餘種 瘡瘍의 證治를 各자 論述하고 病案도 附着하였으며,

第4卷은 瘡瘍各證의 治療方劑를 모두 排列하여 說明하였다. 이 冊은 論述이 簡略하고 外科瘡瘍에 對한 辨證과 豫候의 內容을 相當히 많이 說明하였으며,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重要한 外科著書이다.

④ 『外科心法』: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7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外科에 관한 醫論과 醫案을 著述하였다. 第1~2卷은 여러 醫家들의 診斷과 治療大法을 記錄하였고, 第3~6卷은 薛己 自身の 外科病症治療에 對한 病案을 記錄하였으며, 第7卷은 앞의 各卷에서 使用된 方劑를 記錄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驗方劑까지 附着시켰다. 이 冊 역시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著書中의 一部이다.

⑤ 『外科經驗方』: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腫瘍, 潰瘍, 疔瘡, 乳癰, 癰瘤, 咽喉, 口齒, 囊癰, 下疳, 痔瘡, 便毒, 懸癰, 臍瘡, 湯火, 小兒丹毒 등 여러 外科病症의 臨床經驗方劑들을 分別하여 論述한 著書이다.

⑥ 『癰瘍機要』: 1554년에 간행된 冊으로서 3卷으로 되어 있는데, 麻風病(癩病)을 專門的으로 論述한 著作으로 주로 麻風病의 本症, 變症, 兼症, 類症의 辨證治療와 驗案 및 治療方藥에 對하여 分別하여 詳細히 論述하였다. 上卷에서는 우선 癰瘍의 病因, 病機, 病位 및 治療原則에 對하여 論하였고, 다음에 癰瘍의 本證治法, 兼證治法, 變證治法 및 各種 類似病證에 對하여 論하였으며, 마지막에 本證의 治驗과 類證의 治驗에 對하여 紹介하였다. 中卷에서는 諸症에 對한 治療를 이어서 論한 것으로 男性, 婦人, 小兒의 各種 癰瘍의 證治에 對하여 論하고 있다. 下卷에서는 各 病症에 使用되는 處方 109개에 對해 紹介하고 있다. 이 冊은 醫案病例를 比較的 많이 收集하였고, 病候의 句節과 題目에 對한 論述이 明白하여 後世 醫家들이 麻風病을 研究하는 重要한 參考書籍이 되었다.

⑦ 『女科撮要』: 薛己가 1548년에 쓴 冊으로서 2卷으로 되어 있다. 上卷에서는 흔히 보이는 婦人科 疾患인 經候不調, 帶下, 乳癰, 乳巖, 陰瘡 등

에 대하여 論述하였고, 下卷에서는 産科에 屬한 病證인 保胎, 小産, 胎衣不出, 産後腹痛 등에 대하여 論述하고 있다. 上卷과 下卷에서 各各 15種의 病證을 擧論하고 있다. 每 病證을 論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病因, 病機 및 治療原則을 論하였고, 다음에 臨證經驗을 列擧하였다. 每 卷의 마지막에는 各 病證에 該當한 治療方劑를 總合하여 附錄하였다. 이 冊의 特徵은 婦科와 産科 疾患을 分類하여 證治하였으며, 論述한 內容이 多樣하고 資料가 廣範圍하여 産科臨床辨證에 一定한 參考價値가 있다.

⑧ 『保嬰撮要』: 薛鎧가 쓰고 後에 薛己가 增補한 冊으로서 20卷으로 되어 있는데, 1555년에 간행되었다. 앞의 10卷은 初生嬰兒의 護養法과 兒科疾患의 診察法, 變蒸, 五臟主病 및 幼兒內科雜病의 證治를 論述하고 있는데 薛鎧가 저술하고 그 중의 治驗部分만 薛己가 補充한 것이다. 뒤의 10卷은 모두 薛己가 쓴 것으로 주로 小兒의 外科, 內科, 皮膚科, 五官科 및 痘疹 등 221種의 病의 證治와 醫案을 주로 論述하였다. 每種 病證을 論함에 있어 먼저 病因, 病機, 治療原則을 論하고, 다음에 本 病證의 治驗醫案과 各種 治法을 記載하였으며, 마지막에 各種 方劑를 附錄하였다. 이 冊의 特徵의인 面은 比較的 豐富한 治療方法을 紹介하였을 뿐만 아니라 大量의 小兒科醫案을 收錄한 것이다.

⑨ 『口齒類要』: 薛己가 1528年(嘉靖7年)에 쓴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齒齙(唇), 口瘡, 齒齙, 舌症, 喉痺, 喉間雜病 등 8種의 口腔科疾患과 諸蟲入耳 등 4가지 모두 12가지 種類의 口齒科 疾患에 對한 辨證과 治療方法을 論述하였고, 每 證의 뒷 部分에 驗案과 方劑를 附着하였으며 記載된 方劑는 모두 69個가 되고, 每 方劑마다 適應症을 詳細하게 論述하였다. 그리고 이 冊에는 骨鯁, 詛蟲, 體氣(狐臭, 액취) 등 疾病의 證治法도 記載하였지만 주로 口腔疾患을 論述한 專門 著作이다.

⑩ 『過秦新錄』: 薛己가 約 16世紀 中期에 쓴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첫 篇은 小兒科

面部色診의 診法과 30여개의 治療驗案을 附着하여 論述하였고, 그 다음 篇은 小兒指紋의 診法과 10여개의 治療驗案을 附着하여 論述하였으며, 마지막 篇에는 小兒科의 常用方劑 60여개를 附着하였다. 이 책은 小兒科의 望診에 對한 論述이 아주 特色이 있어 兒科診治의 常用 參考書籍으로 되었으며, 後世에 이 冊을 『保嬰金鏡錄』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冊은 薛己가 校註 하였으나, 冊을 쓴 著者는 누군지 不分明하다고 하였다.

⑪ 『正體類要』: 薛己가 1529年(嘉靖八年)에 쓴 傷科에 對한 專門著作으로서 2卷으로 되어 있는데, 첫 篇은 正體의 主治大法을 19條 記錄하였고, 그 다음 篇은 撲傷, 墜跌, 金傷, 燙火傷 등 三種類 疾病에 關한 醫案으로서 64個의 病證을 每 證마다 1~3개의 예를 들어 記錄하였으며, 下卷은 傷科의 臨床治療方劑를 記載하였다. 外治에 使用되는 方劑를 紹介한 外에 特別히 內治의 方劑를 重視하였는데, 그는 氣血을 調和시키고 肝腎을 補하는 것을 主로 삼았고 行氣活血하는 것을 次로 삼았다. 이 책의 特點은 理論과 臨床實際를 잘 結付시켰으며, 方劑와 證이 모두 적혀 있어 臨床 實踐에 適合한 著作이다. 『醫宗金鑑·正骨心法要訣』은 바로 本書를 모델로 삼아 編纂한 것이다.

薛己가 쓴 수많은 醫學著作과 校刊한 醫書는 우리들에게 그의 重要한 學術思想과 豐富한 臨床 經驗을 提供하고 있다. 例를 들면 『痲瘍機要』, 『口齒類要』, 『正體類要』等 著書들은 모두 現存하는 比較的 오래된 專門醫著들로서, 만약 그 當時 薛己가 『小兒痘診方論』, 『外科精要』, 『敖氏傷寒金鏡』, 『原機啓微』, 『癰疽神秘驗方』등 重要한 醫書들에 對하여 校刊에 전력하지 않았다면, 아마 至今까지 保存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4. 時代背景과 歷史淵源

1) 時代背景

明 嘉慶年間부터 萬曆年間(1522~1620)까지는

國家가 統一되고 政治가 安定됨으로써 工商業이 보다 發展되고 國民經濟가 날로 繁榮해졌으며 文化科學도 따라서 많은 進步를 가져오게 되었다.

薛己는 바로 이와 같은 明 王朝의 上昇期에 살았는데, 社會의 安定은 그로 하여금 비교적 좋은 環境에서 醫學研究에 從事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장시일 동안 院使를 맡고 있었기에 수많은 書籍을 두루 涉獵할 수가 있었고 前賢들의 學術經驗을 繼承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가 크게 成就할 수 있게 된 有利한 條件들이었다.

良好한 客觀的 條件은 學術發展에 아주 必需의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學術研究에 從事하는 學者들은 모두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當時의 社會意識形態의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 當時 明 王朝는 宋元 理學을 大的으로 提唱하였는데, 朱熹가 提唱한 綱常禮教 등의 倫理道德을 崇尚하였고, 王守仁(陽明)이 提唱한 ‘心無外物’ 등의 ‘心學’思想을 崇尚하였다. 이와 같은 思想의 影響을 받아 醫學界에서는 尊經復古思想이 胎動되어 “醫不通儒 不可以言醫”라는 主張이 形成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儒醫’라고 自命하는 많은 學者들이 儒家가 『四書』와 『五經』을 尊崇하듯이 『內經』을 融通性없이 읽어 한 걸음도 『內經』을 벗어나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薛己도 官醫의 한 사람으로서 그 影響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지만, 그는 “雅近於儒 其以醫名世也”라는 評價를 받았다(『女科撮要·序』).薛己는 尊經復古思想과 儒家의 현실과 괴리된 性理學 思想의 影響을 받았으면서도 또 客觀的 實際에 比較的 忠實한 편이었기에 그는 長期間의 臨床經驗을 통한 研究를 거쳐 자신의 學術風格을 形成하게 되어 成就된 바가 있는 醫學家가 되었다.

그리고 薛己가 撰著한 醫書들은 友人의 도움을 받아 印刷 및 出版되어 世上에 傳해지게 되었다.

2) 歷史淵源

中醫學은 歷史가 悠久하며 中華民族이 疾病을

克服하는 長期間의 過程에서 끊임없이 發展되어 온 것이다. 春秋戰國時代에 『黃帝內經』이 나오게 됨으로써 中醫學의 理論基礎를 初步的으로 다져 놓았고, 漢代의 張仲景이 前人의 經驗을 總結하여 『傷寒雜病論』을 著述함으로써 六經辨證의 理論體系를 確立하여 臨床醫學의 良好한 基礎를 다져놓았다. 이 基礎위에서 歷代 醫家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繼續하여 經驗을 總結하고 臨床 各科의 內容을 充實케 하였는데, 특히 金元四大家를 代表로 한 각기 特徵있는 學術 流派를 形成하여 中醫學의 발전을 促進하게 되었다. 明代의 醫學은 각 方面에서 모두 비교적 顯著한 發展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薛己에 대하여 必然的으로 巨大한 影響을 끼쳤을 것이다. 그는 “以岐黃으로 世業하고 旁通諸家하여 微詞頤旨에 靡不究竟이라”⁸⁾(『癘瘍機要·序』)하고 自身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著書立說하고 스스로 一家를 形成하게 되었다. 薛己는 일찍이 “夫人憑車而歷垣道 登舟而泛安瀾 情與境俱適”⁹⁾(『本草約言·序』)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는 바로 이와 같이 前人之車와 先輩之舟를 타고 새로운 創造와 進步를 하게 된 것이다. 薛己의 平生의 主要한 學術成就是 主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脾胃를 重視한 것과 善用溫補인데 그는 溫補派의 內容을 豊富케 하였고 특히 外科에 能하여 많은 著述을 남겼다.

薛己의 溫補學術思想이 形成되기에는 金元四大家의 學術流派가 많은 影響을 끼쳤다. 金元時代의 學術論爭은 中醫學의 理論을 하나의 새로운 段階로 推進시켰고, 이로 因하여 서로 다른 學術流派가 많이 나타났다. 그 중 劉完素는 ‘火’를 主張하여 寒涼藥을 즐겨 쓰는 ‘寒涼派’에 속하고, 李杲는 內傷致病을 強調하고 胃氣를 保護하는 것을 主張하는 ‘補土派’에 屬하며, 朱丹溪는 ‘陰常不足而陽常有餘’의 說을 提唱하여 滋補陰精함으로써 相火를 抑制해야 함을 主張하였는데 後世에서는 그를 ‘滋陰派’라고 불렀으며, 張從正은 邪氣致

8) 薛氏醫案上冊, p. 271.

9) 薛立齋醫學全書, p. 393.

病을 重視하여 汗·吐·下 三法을 잘 使用한 '攻下派'에 속한다. 各 流派의 學術적인 主張은 비록 모두 偏頗의인 面이 없지는 않지만 일부 疾病의 難題를 풀어주어 東洋醫學의 內容을 보다 豊富케 하였다. 學術上的 爭鳴은 醫學理論을 進一步로 發展시켰다. 薛己는 四大家의 理論을 공부하였는데, 그는 특히 東垣과 丹溪의 說을 崇尚하였고 그들 理論에서 合理的인 核心을 吸收하고 自身의 思想과 融合하여 自身의 學術적인 主張인 脾胃並重 思想을 形成하게 되었다. 사실 李東垣과 朱丹溪 外에 先人들의 醫學理論도 薛己에 대하여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쳤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의 理論과 『素問·至真要大論』의 ‘勞者溫之’ 그리고 ‘損者益之’ 등 理論도 薛己의 學術思想의 形成에 理論基礎를 提示하였다. 이 外에도 『難經·十四難』에서 提示한 五臟虛損의 治療原則도 薛己가 溫補脾胃하는 方藥을 選擇하여 使用하는데 方向提示의 役割을 하였다. 그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등 方劑를 選擇하여 溫補脾胃하는데 使用하였고, 張仲景의 腎氣丸과 錢乙의 六味地黃丸을 選擇하여 溫補命門하는데 使用하였다. 여기에서 薛己가 脾胃를 重視하고 溫補를 善用하는 理論의 淵源을 다 소 엿볼 수 있는 것이다.

薛己가 各科에 두루 통한 臨床醫家가 된 關鍵은 그가 長期間 臨床을 한 것에 있다. 그의 著書에 收錄된 醫案만 해도 3千餘件이 되는데 이것은 醫學文獻중에서 보기 드문 경우이다. 물론 理論의 指導가 없는 盲目的인 臨床으로는 절대로 一派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薛己가 臨床 各科에서 成就된 바가 있게 된 것은 두 가지의 重要要素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能히 諸家의 長點을 취하고 前人的 經驗을 거울로 삼은 것이다. 薛己가 處한 年代에는 各科에 該當한 著名한 醫籍이 이미 世上에 두루두루 傳해진 時期이었는데, 예를 들면 錢乙의 『小兒藥證直訣』,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과 『外科精要』, 王綸의 『明醫雜著』, 陳文中的 『小兒痘疹方論』 등이 있다. 薛己는 이와 같은 醫書를 읽으면서 前사람의 經驗을 배우는

한편 또 校註를 加하는 것을 通하여 發揮한 바도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本人의 著書立說의 基礎로 삼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그가 家傳을 繼承한 것인데 그의 父親 薛鑑는 弘治年間의 太醫로서 특히 小兒科에 能하여 『保嬰撮要』를 著述하였다. 薛己는 父親의 小兒科 診療經驗을 繼承하여 父親의 著書 중에 臨床醫案을 補充하였을 뿐만 아니라 小兒外科와 痘疹 등 方面의 經驗을 增補하기도 하여 薛己의 小兒科 學術經驗을 充分히 反映시켰다.

5. 學術思想의 特徵

1) 治學方法의 思路

薛己는 一代 名醫로서 豊富한 醫學知識과 實踐經驗이 있는 外에 自身의 思維方法과 治學手段이 있었다.

(1) 治學思路

所謂 治學思想이란 學問을 하는 思維方法을 말하는 것인데 薛己의 思維方法을 보면 古代의 自然哲學思想의 影響을 받고 있었다. 古人들은 當時의 自然哲學思想과 精氣, 陰陽, 五行 등 學說을 運用하고 長期적인 醫療經驗을 總結하여 中醫學의 基礎理論을 闡述하였는데, 이와 같은 內容들은 『內經』에 集中的으로 反映되어 있다. 薛己는 이와 같은 『內經』의 思想體系를 繼承하고 前人들의 업적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醫學研究와 臨床實踐에 從事하였다.

薛己는 당시에 유행한 성리학의 空虛한 이론에 빠지지 않고 實踐을 重히 여겨 因證論病하고 以藥治病하였다. 薛己는 일찍이 “信藥有回生之功 不可委於天命也”(『女科撮要·經漏不止』)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醫藥의 功力을 믿어야지 消極적으로 生死를 天命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強調하였다. 同時에 薛己는 일부 醫師들의 “顧卒委命”라는 主張을 反對하였는데 그는 “今之醫者 率執數方以求試 及其不效 則回命也 夫按方以求病 非因

病以處方 此與刻舟 膠柱者何異焉 顧卒委之命 悲夫”(『保嬰撮要·書』)라고 批評하였다. 이는 『內經』의 “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이라는 思想과 基本的으로 一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薛己가 能通한 外科를 예로 보면 그는 “必有諸中而後形於諸外”라고 主張하였는데, 즉 機體 內部的 病理變化는 必然的으로 體表에 反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臨床에서 外用藥을 補助的으로 使用하는 외에 특히 內治를 중히 여겼다. 이러한 學術觀點은 바로 『內經』에서 비롯된 整體觀念에 속한 것이다. 그는 臨床實踐에 있어서 疾病의 臨床表現을 客觀的 根據로 삼았고, 하나하나의 病에 대하여 모두 詳細하게 辨證을 進行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歷節風에 대하여 “大抵痛而不敢按者是 屬病氣元氣俱實也 手按而痛緩者是 病氣元氣俱虛也 若勞役而作痛者是 元氣虛也 飲食失宜而作痛者是 脾胃虛也 怒惱而作痛者是 肝火也 經行而作痛者是 血虛也”라고 辨證을 加하였다.

(2) 治學方法

薛己는 自身の 醫學理論과 豊富한 臨床經驗으로 醫林에서 自成一家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嚴格하고 慎重한 治學方法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治學方法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概括할 수 있다.

① 群書を 博覽함

薛己는 스스로 자기를 “性習觀書”라고 稱하였을 정도로 醫籍을 읽고 整理하는 일을 樂으로 삼았고 많은 著述을 하게 되었다. 그의 著書에는 많은 文獻이 引用되었는데, 그는 위로는 秦漢時代로부터 아래는 明代까지의 各家의 醫理와 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 등 諸科의 書籍을 두루두루 모두 읽었다. 統計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著書에 引用한 文獻數는 『外科發揮』가 30종, 『外科樞要』가 15종, 『廣養機要』가 3종, 『正體類要』가 8종, 『口齒類要』가 14종, 『內科摘要』가 8종, 『女科撮要』가 9종, 『保嬰撮要』가 30종이었는데, 그중 引用한 回數가 가장 많은 것이 『內經』, 『傷寒論』 그리고 李東垣과 朱丹溪의 著書였다.

薛己는 “推內經之微旨하고 而生平之微驗者를 尤當觸類而長”이라고 하면서 經典을 배움에 있어서 繼承과 發揮를 잘할 수가 있었다. 薛己가 이와 같이 많은 書籍을 閱覽하고 그 長點들을 吸收할 수 있음으로 하여 그의 研究에 튼튼한 基礎가 形成되었다.

② 果敢하게 實踐함

薛己는 50년의 臨床에서 無數히 많은 患者를 診療하였는데, “驗於己者”한 경우도 있었고 “驗於人者”한 경우도 있었으며, 成功한 病例도 있었고 失敗한 病例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著書에 매 하나의 病證마다 모두 病因, 治療原則, 辨證用藥 등에 대하여 論述을 하였고, 同時에 治驗한 病例를 여러가지 收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保嬰撮要』에서 그는 治驗病例를 1542例나 收錄하기도 하였다. 그가 實踐을 重視하고 實際效果를 講究하며 論한 바가 根據가 있어 著書중의 病例가 事實에 맞기 때문에 그의 著書는 後世의 歡迎을 많이 받고 있다. 그의 臨證經驗은 항상 治驗病例중에서 論하곤 하였는데, 簡略하게 理致를 論한 경우도 있고 豫防을 言及한 것도 있으며 豫後에 대한 論述도 있었는데, 그가 古處方과 成方을 運用하는 經驗을 보여주는 한편 加減用藥의 要領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특히 死亡한 病例를 收錄하는 것에 注意를 기울였는데 이는 當時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아주 所重한 精神이라 할 수 있다. 이는 著者의 求實하는 態度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失敗의 病例에서 사람들이 보다 큰 啓示를 얻게 하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③ 資料를 널리 收集함

薛己는 資料收集에 매우 能하였다. 그는 매번 “遇施之治 有一得驗者 輒自識之”하였고, 또 “私淑先哲 亦時獲驗”이라 한 것과 같이 부지런하게 資料를 收集하였다. 薛己의 資料收集의 狀況을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는데, 첫째는 前賢의 論述을 廣範圍하게 收集하여 論據로 삼아 자신의 著書에 引用하는 것이고, 둘째는 臨床資料를 널리 收集하는 것이다. 그는 長期間의 臨床을 통해 大量的의 病案을 收集하였는데, 『外科發揮』등 8種 著書만

해도 3000례에 가까운 病案을 收錄하였다. 그 중에 門人과 友人의 治驗病案도 14개가 包括되는데, 이와 같이 著書중에 病案을 添附함으로써 아주 說得力이 있게 되었다.

④ 總結을 잘 하였다.

薛己는 大量的 資料를 確保한 뒤에는 科學的인 歸納과 分析을 하였는데, 資料를 아주 自由自在로 活用하였고 治驗病例의 收錄도 아주 適切한 곳에 잘 하여 條目條目이 井然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內科摘要』를 보면 그는 202개의 病案의 特徵을 分析하여 “元氣虧損內傷外感等症”이라는 2種類로 整理하고 歸納하였고 上下 兩卷으로 나누었다. 全書를 보면 專門的으로 理論을 論述한 章節은 하나도 없으나 薛己의 溫補脾腎의 學術思想은 곳곳에서 昇華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보면 群書를 博覽하고 果敢하게 實踐하며 資料를 널리 收集하고 總結을 잘 하는 治學方法은 薛己로 하여금 學術研究에서 成功을 이루게 한 重要的 要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學術指導思想

沈謙은 『校註婦人良方』의 序에서 “薛君은 生平精力을 不暇妄費하고 坐臥行住에 須臾不離”라고 薛己를 紹介하였는데 基本的으로 薛己의 刻苦한 治學精神을 反映해 주고 있다. 薛己는 부지런하게 著述을 하였는데, 그는 한 生의 努力으로 『薛氏醫案』이라는 巨作을 醫學界에 바쳐 中國醫學의 內容을 보다 豊富하게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은 뛰어난 成就를 거둘 수 있는 것은 正確한 學術的인 指導思想이 重要的 役割을 한 것이 틀림없다.

(1) 扶困起廢 治病救人

薛己는 刻苦의 努力에 家傳까지 繼承하였기에 弱冠에 벌써 御醫가 되었고, 그 후에는 官醫의 身分으로 數十年間 醫學에 從事하였다. 그는 한

명의 醫師로서 始終一貫 “扶困起廢 治病救人”을 自身の 使命으로 생각하여 來院하는 患者들마다 모두 精誠껏 治療를 해 주었다. 그리하여 初診에 完快된 患者도 있었고 몇 번의 再診을 통하여 痼疾病을 고친 患者도 많이 있어 病家의 推仰을 많이 받았다. 張仲景이 “上以療君親之疾 下以救貧賤之厄”이라 하였듯이 薛己는 醫師로서 각 階層의 患者를 差別하지 않고 봐 주었다. 張准은 『外科發揮』의 序文에서 “君子는 不忘乎親하고 不私其有니 夫不忘其親之謂孝오 不私其有之謂仁이니 孝則仁하고 仁則公하고 公則溥이라”¹⁰⁾ 薛己의 醫德을 稱讚하였다. 薛己의 “扶困起廢”는 곧 治病救人하는 것인데, 이런 思想을 바탕으로 그는 長期間에 걸쳐 廣範圍하게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등의 病症을 治療해왔고, 수많은 經驗을 蓄積하여 著書立說하는 良好한 基礎를 다져놓았다.

(2) 傳播醫學 勤於著述

薛己가 처한 時代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두 가지 弊端이 있었다. 하나는 “以方試病”인데, 薛己는 이에 대하여 심히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醫師는 마땅히 醫理를 根源부터 明確히 理解하고 또 이를 根據로 治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患者의 生命을 危急하게 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다른 한가지 弊端은 일부 醫師들이 “得一方輒以自秘 取一效則以自多”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醫理를 깊이 研究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安住하려 하는 醫療風潮는 患者에게도 不利하고 醫術의 發展에도 좋지 않은 影響을 미쳤다. 그리하여 薛己는 著書立說에 보다 精進하여 “以隨治驗方 萃以成編 庶光濟人”하고자 하였다. 范慶은 『女科撮要』의 序文에서 “薛君以名醫致身 不自秘而以示人 將欲致人人於名醫”라고 評價하였는데, 이로 보아 薛己가 부지런하게 著述에 沒頭하는 것이 明確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薛己는 治學의 態度가 謹嚴한 편인데 예를 들면 加味八味丸으로 瘡瘍作渴을 治療하는 것을 많은 醫師들이 反駁하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10) 薛氏醫案選, 上冊, p. 3.

계속 臨床에서 使用하여 왔으며, 또 著書中에 編入하기도 하였다. 그는 “家藏此方 親用有驗 故敢詳著之”(『外科發揮·瘡瘍作渴』)라고 說明하였다.

薛己는 또 “窮鄉下邑之無名醫”를 考慮하여 오직 著書를 많이 하여 “以便初學 鄉僻之用”함으로써 醫術을 널리 傳해야 한다고 여겼다. 封建社會에서 院使의 官職을 맡은 薛己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로 所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養心辟邪 主張調補

疾病의 發生과 發展은 各種 素因의 影響을 받는 것인데, 各 醫家들이 疾病에 대한 認識이 같지 않으면 學術的인 主張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薛己는 “設或六淫外侵而見諸症 亦因其氣內虛而外邪乘襲”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認識은 『內經』의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理論과 一致한 것이다. 이와 같은 認識을 바탕으로 薛己는 “養正辟邪”(『女科撮要·經閉不行』)라는 基本主張을 提出하였다. 養正이란 機體의 正氣를 扶助調養하여 抗病能力을 提高함으로써 驅邪治病하는 目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養正辟邪”하는 方法에 대하여 薛己는 “以補爲守備之完策 以解利爲攻擊之權宜”(『腐瘍機要·序』)라고 하였는데, 즉 解利攻邪는 단지 治病의 權宜之計에 不過하고 調補養正만이 治療의 基本大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薛己의 基本的인 學術思想이라 할 수 있다. 薛己가 養正調補의 原則을 主張하는데는 그가 處한 特定 環境과 一定한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太醫院에서 長期間 奉職하면서 平素에 보는 患者들은 大概가 當時의 統治階級이고 達官 貴人들인데, 그들은 平素에 養尊處優하고 淫逸享樂하며 罰賊元氣한 緣故로 흔히 陰虛陽衰之症에 걸리기 쉬우므로 八味丸이나 六味丸을 자주 使用하여 調補해주곤 하였다. 이러한 臨床經驗은 그의 學術思想의 形成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總括的으로 보면 위에서 言及한 指導思想은 薛己가 一代 名醫로 되는 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扶困起廢”의 思想의 指導하에 그는

能히 廣範圍하게 臨床實踐을 하여 經驗을 蓄積하고 부지런한 著述을 하여 後世에 所重한 醫學遺產을 남겨 주었으며, “養正調補”의 思想의 指導하에 그는 學術的으로 끊임없이 深入하여 “溫補學派”學術思想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4) 治病에 根本을 구하고 化源을 滋養하는데 힘씀

薛己는 『內經』의 “治病必求其本”의 사상에 근거하여 臨證 治病時에 治本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중시하였다. 沈啓源은 『腐瘍機要·序』中에서 薛己는 治病에 “不問大小하고 必以治本으로 爲第一要義”하였다고 칭송하였다. 薛氏의 治療는 根本을 구하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두 가지 方面으로 포괄된다. 그 하나는 辨證施治의 원칙으로 薛氏는 임상에서 辨證할 때 반드시 疢의 本質을 파악하여야만 한다고 인식하여 그는 “凡醫生活病에 治標不治本은 是不明正理也”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外感, 內傷의 證을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疢 發生의 本원을 파악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前人의 “痛無補法”의 學說에 대하여 다 그런 것이 아니므로 고집하여 얽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腹痛에서 面色이 黃中에 靑색을 띠고 左關脈은 弦長하고 右關脈은 弦緊한 症은 土衰木旺한 證으로 분명히 변증되므로, 益氣湯에 半夏·木香을 加하여 사용하면 확실히 낫는다고 하였다. 둘째는 脾胃의 調治가 治病의 關鍵이라고 지적하였으니 그는 “經云 治病必求其本은 本于四時五臟之根也”라고 말하였다. 薛氏는 脾胃의 작용을 중시하여 脾胃가 五臟의 根蒂이고 人身의 根本이 되어 脾胃가 한번 虛하면 諸證이 야기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薛氏는 治病에 “以胃氣爲本”이라고 더욱 강조하였고 그 후에 黃履素는 『折肱漫錄』中에서 일찍이 “治病에 必以脾胃爲本은 東垣立齋之書나 養生家 當奉爲著蔡也라 如治脾無效면 則求之于腎”이라 하였다. 『四庫全書』에서도 薛氏의 이런 治療 특징을 높이 평가하였으니 “薛己治病은 在于務求本源”이라고 하였다. 이는 매우 확실하고 적절한 말이다.

化源은 즉 生化의 근원으로 인체의 後天 化生의 根源은 마땅히 脾胃의 元氣에 속한다. 토는 만물의 母가 되어 土가 아니면 萬物을 生하지 못하고 오히려 土가 旺하면 만물이 번성하고 인체도 모든 臟이 비로소 滋養함을 얻고 生氣가 비로소 풍부하게 勃發하게 되니, 따라서 薛己가 이 化源을 滋養함을 강조한 것이니 실제로는 脾土를 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脾肺의 손상으로 咳嗽 痰喘 등 症을 論治할 때에 “當補脾土 滋化源 使金水自能相生”이라고 제시하였다. 黃履素는 薛己의 化源을 滋養한다는 학설을 해석할 때 일찍이 말하기를 “化源者何也 蓋補脾土以滋肺金하여 使金能生水이니 水足木自平而心火自降”이라 하였다. 따라서 薛己는 脾胃가 기타 四臟의 化源이 된다고 인식하여 病이 虛損의 症에 속하는 것은 모두 化源을 滋養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그는 “症屬形氣病氣 俱不足하여 脾胃虛弱하면 津血枯涸而大便難耳니 法當滋補化源이라”¹¹⁾고 하였다. 그러나 薛己는 化源을 滋養하는 治法에 대해 脾胃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울러 그 범위를 腎과 命門에까지 확대하여 六味, 八味丸을 化源을 滋養하는 治法으로 삼았다. 이 化源을 滋養하는 것을 중요히 하는 것이 실제로 薛己가 虛症을 治療하는 하나의 특징이 되며 또 治病에 本源을 구하는데 힘쓰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薛己는 臨證 治療 중에 항상 五行의 相剋 이치를 운용하였으니, 虛하면 그 母를 補하는 治法을 取하여 化源을 滋養하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그는 張元素의 臟腑辨證을 매우 추앙하여 『醫宗摘要』에서 “潔古云 五臟子母虛實鬼邪微上에 若不達其旨意면 不易得而入焉이라” 하였다. 또 『難經』의 “虛者補其母”의 治法을 善用하여 가령 腎은 肝의 母가 되니 六味丸으로 滋腎水하여 肝木을 生하고, 肺氣虛弱에 補脾土하여 그 母를 補하여 化源을 滋養하되 만약 應하지 않으면 다시 土의 母를 補하니, 火를 補함으로써 土를 生하고 土가

旺하게 되어 金이 生하게 한다. 薛己의 臟腑虛損證에 대한 論治는 後人들이 본받을 만하다.

(5) 虛證을 치료함에 심득함.

『薛己醫案』의 기록에 의하면 薛己가 평생 치료한 病症은 內傷雜病이 많았으니 그는 평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大凡雜病屬內因하야 乃形氣病氣 俱不足하니 當補不當瀉”라고 하여 雜病은 虛한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고 인식하여 雜病 虛證의 치료방면에 있어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後世사람들이 이를 추종하게 되었다.

薛己는 虛證을 논할 때 반드시 陰虛를 언급했다. 여기에서의 陰은 津液, 精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三陰 肝脾腎의 虛를 개괄하는 것으로 즉 “陰虛는 乃脾虛也니 脾爲至陰”이라고 하였다. 足三陰은 즉 足太陰脾 足少陰腎 足厥陰肝이고 脾는 至陰의 臟이므로 따라서 陰虛는 즉 脾虛라고 보아 그는 “大凡足三陰虛는 多因飲食勞役하야 以致胃不能生肝하고 肝不能生火而害脾土하야 不能滋化니 但補胃土則金旺水生하고 木得平而自相生矣라”¹²⁾고 하였다. 虛損의 症은 肝 脾 腎 三臟의 調治를 강조하고 세 가지 중에서 더욱 脾土가 關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內傷發熱症에 대해 陽虛發熱은 대부분 脾氣虛에 속하므로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升補陽氣하고, 陰虛發熱은 대부분 腎陰虛에 속하므로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여 培補陰血하고, 肝腎虛熱에 대해서는 四物에 柴胡 山梔 山茱萸 山藥을 加하여 사용하고, 脾肺虛熱은 補中益氣湯으로 六味丸을 連服하니 上述한 內傷發熱에 대해 薛己는 모두 足三陰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血虛의 치료에 대해 이미 虛에 이르는 서로 다른 원인에 주의하고 또한 오로지 溫補하여 효과를 얻는데 뛰어났으니, 그는 “大凡血虛之證은 或氣虛血弱하며 或陽氣脫陷하며 或大失血하야 以致發熱 煩渴等證이니 必用四君 歸 芪하며 或獨參甘溫之劑니 使陽旺則陰生하야 其病自愈어니와 若用寒涼降火하면 乃速其危也라”고 하였다. 陽氣를 溫補하고

11) 王綸撰 薛己注, 明醫雜著, 中國, 江蘇科技出版社, 1985, p. 39.

12) 薛己醫案選, 下冊, p. 418.

肝脾을 調治하는 것은 薛氏의 血證論治의 중요한 특징이다. 中風 一證에 대해서 薛氏는 肝腎의 虛를 강조하여 “此風은 非外來之風邪오 乃本氣病也라”, “然在半體者는 肝腎所居之地니 肝主筋하고 腎主骨하며 肝藏血하고 腎藏精하니 精血枯槁하여 不能滋養故로 筋骨偏廢而不用也라”¹³⁾ 하였다. 그는 前人의 主火 主痰 主氣虛의 학설을 기초로 腎精·肝血의 손상이 中風의 근본적인 原因임을 강조하여 肝腎內虛의 일면을 부각하여 內風學說의 病機이론을 풍부하게 하고 葉桂의 “陽火內風”說의 실마리를 열게 하였다. 痰症의 論治 方面에 대하여 薛氏는 脾胃虛損으로 中焦氣虛하여 運化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또한 腎經이 虧損하여 津液이 下降하기 어려워서 敗濁이 痰이 됨을 강조하였으니 이는 眞臟의 病으로 치료는 六味丸으로 腎氣를 壯하게 하였다. 이에 痰症에 대하여 薛氏는 脾胃二臟의 虛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만약 脾胃이 健壯하면 痰은 곧 生할 수가 없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薛氏는 雜病중 虛證의 辨證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며 아울러 독창적인 견해가 많다. 그는 虛損證은 어떤 淸에서 다른 證과 假象으로 變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니, “若氣高而喘하며 身熱而煩하고 或揚手擲足하며 口中痰甚者는 屬中氣虛弱而變症生也니 宜用補中益氣湯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런 종류의 身熱하면서 煩하는 것은 “脾胃虛弱之假證也니 設認爲熱症則誤矣라”¹⁴⁾고 하였다. 또 예를 들어 “大抵病熱에 作渴飲冷하며 便秘는 此症屬實하니 爲熱故也오 或惡寒發熱하며 引衣踰臥하며 或四肢逆冷하며 大便淸利는 此屬眞寒이오 或躁擾狂越하며 欲入水中하며 不欲近衣는 屬虛니 外假熱而眞寒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肚腹喜煖과 口畏冷熱은 內傷虛證과 外感實證의 變別하는 요점으로 보았으니 이것은 임상치료에 있어서 매우 교훈적인 의의와 거울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로써 보면 薛氏는 內傷雜病은 虛證으로 많이 보았고 그 判건은 足三陰虛라고 인식하였으니

明代이후 모든 醫家들이 雜病에 虛證으로 치료함에 溫補法을 多用한 것의 이론적 기초를 초보적으로 세운 것이다.

3) 理論的 成果

薛己의 理論面의 成果는 주로 脾胃에 대한 闡發과 溫補에 能하다는 두 가지 面에서 表現된다.

(1) 脾胃並重說을 提唱한

東洋醫學에서는 人體를 臟腑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有機體로서 機體의 健康與否는 臟腑의 機能과 病理變化와 密接하게 關係된다고 認定하고 있다. 그 중 脾胃는 臟腑의 生理 및 病理에 있어서 至極히 重要하므로 薛己는 이에 대하여 特別한 重視를 하게 되었다.

① 脾胃를 중시한

薛己의 脾胃학설은 『內經』에 연원하고 아울러 李東垣의 『脾胃論』의 영향을 깊이 받아 그는 “內經千言萬語는 旨在說明人有胃氣則生하고 以及四時皆以胃氣爲本이라”고 하였다. 『內經』의 이 觀點을 계승하여 薛氏는 脾胃의 人체 生命활동상의 작용에 대하여 특히 重중시하였다. 脾는 中洲의 臟으로 四方에 灌溉하고 胃를 위하여 津液을 行한다. 人체에 生氣와 活力이 있는 것은 전부 脾胃의 滋養과 健運에 의지한다. 따라서 그는 “人以脾胃로 爲本하니 納五穀精液하여 其淸者는 入營하고 濁者는 入衛라 陰陽得此를 是謂榮衛 故로 陽則發于四肢하고 陰則行五臟이라 土旺四時하여 善載乎萬物하니 人得土以養百骸하고 身失土以枯四肢라”고 하였다. 脾胃는 모든 臟腑中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어 人체 모든 臟에 正當적인 生리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모두 脾胃가 生化하는 水穀의 精氣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薛氏는 “胃爲五臟本源이오 人身之根蒂라”, “脾胃氣實則肺得其所養하고 肺氣既盛하면 水自生焉하여 水升則 火降하여 水火既濟而天地交泰이니와 若脾胃一虛則其他四臟이 俱無生氣라”고 말하였다. 薛氏는 內傷 雜病의 치료에 있어서 脾胃를 가장 중요시

13) 明醫雜善, 상계서, p. 131.

14) 明醫雜善, 상계서, p. 145.

하여 培土補中을 주장하니 실제로 이는 東垣의 학설을 계승하여 『內經』의 뜻을 闡發한 것이다.

脾胃의 盛衰와 인체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薛氏는 病證을 논함에 있어 항상 脾胃의 虛衰를 강조하여 “人之胃氣受傷 則虛證蜂起”라고 말하였다. “內因之症 屬脾胃虛弱”의 소치이며 심지어는 外感疾病도 脾胃虛弱과 元氣不足으로 말미암아 기인한다고 보아 “設或六淫外侵而見諸證 亦因其氣內虛而外邪乘襲이라”하고, “若人體脾胃充實하면 營血健壯하고 經隧流行而邪自無所容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런 正邪의 관점은 『內經』의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이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脾胃의 盛衰가 질병의 發生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薛氏는 임상경험에서 종합한 脾胃가 虛弱하면 諸症이 蜂起한다는 관점은 李東垣의 “脾胃內傷學說”을 더욱 闡發한 것이다.

脾胃는 氣血의 根本이고 脾는 統血 行氣하는 經이 되는데 이 生理 機轉에 대해 薛氏의 학문은 心得이 있고 論술이 자못 자세하니 “血生于脾 故云脾統血이라 凡血病은 當用苦甘之劑하여 以助陽氣而生陰血이라”하고, “血虛者는 多因脾氣衰弱하여 不能生血이니 皆當調補脾胃之氣라”하였다. 脾胃는 人身의 根本이 되어 氣血의 生化도 또한 中焦 脾胃가 근원이 되어 生血에는 반드시 脾胃의 陽氣를 調補하는 것이 우선 된다는 것이니 이는 薛氏가 脾胃와 氣血을 論한 精髓에 해당되는 곳이다. 따라서 陰血 虧損의 證에 脾胃의 氣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 만약에 陽氣가 虛弱하여 陰血을 生하지 못하면 마땅히 六君子湯을 쓰되 陽氣가 虛寒하면 炮乾薑을 加하고, 만약 胃土가 燥熱하여 陰血을 生하지 못하면 마땅히 四物湯을 쓰고, 만약 脾胃가 虛寒하여 陰血을 生하지 못하면 마땅히 八味丸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薛氏가 脾胃를 중시한 일면을 알 수 있다. 그의 脾胃에 대한 論述은 또한 腎·命門과 연관하여 이어 낸 것이다.

또 예를 들어 陰虛와 陽虛로 인하여 일어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發熱 病症에 대해

“二證雖有陰陽氣血之分이나 實則皆因脾胃陽氣不足所致라” 하였다. 臍腹에 대해서 또한 胃脘의 陽氣가 升擧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氣가 中焦에 陷入한 所致이니 마땅히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濁氣를 降하게 하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또 예를 들어 頭面部 질환을 論治할 때에 “脾胃發生元氣나 不能上升하면 邪害空竅 故로 不利而不聞香臭者는 宜養脾胃니 使陽氣上行則鼻通矣라”고 하였다. 薛氏가 그의 학설 사상 중에서 脾胃陽氣를 중시한 것은 아울러 東垣의 학설에 뒤떨어지지 않으니 그는 知母·黃柏 등의 苦寒한 峻劑는 慎用하여 脾胃의 陽氣를 克伐하는 것을 면하여야 한다고 반복하여 제시하였고, 동시에 麥門冬·芍藥·山梔·生地 등의 藥도 多用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니 오직 脾胃에 더욱 장애가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가 甘溫劑를 善用하고 苦寒劑를 강력히 피한 것은 마침내 여전히 東垣을 계승한 나머지 脾胃陽氣의 升發을 중시한 것이다. 薛氏는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脾胃病의 治療에 대해 네 가지 處方으로 귀납하였다. 즉 만약 飲食이 소화되지 않으면 枳朮丸을 쓰고, 脾胃虛弱者는 四君子湯을 쓰고, 脾胃虛寒者는 四君子加炮薑을 쓰고, 命門火衰하면 八味丸을 사용했다. 이는 脾胃疾病의 治療의 요령을 설명한 것이다.

上述한 것처럼 薛己의 脾胃論과 東垣의 脾胃學說은 확실히 공통점이 있으나 李氏는 脾胃의 病變을 논술함에 陰火가 上乘하는 內傷熱中의 病變을 위주로 하였고, 薛己는 이외에도 또한 脾胃虛弱으로 일어나는 寒中症에 대해 무수히 闡發하여 “脾病也當益火 則土自實而脾安矣”라고 하였다. 火衰土弱의 虛寒의 症에 대해 脾胃의 陽을 生發함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補火生土를 제시하였고 腎과 命門의 脾胃에 대한 溫煦作用을 강조하여 脾胃虛損을 치료하는 法이 점차로 완벽해졌으니 이 방면의 論술은 東垣에 비해 더욱 상세하다.¹⁵⁾

② 腎·命門을 闡述함

15) 裘沛然, 嚴世芸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中國, 上海科技出版社, 1984, pp. 154~155.

薛己의 학술사상 중에 腎과 命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뛰어난 한 방안이다. 薛己는 비록 항상 命門火를 논하였으나 그의 命門火에 대한 관점은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說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氣血이 바야흐로 자랄 때 勞心 虧損하거나 혹 精血이 未滿한데 情欲에 방자하여 根本이 不固하여 火가 歸元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病證에 대해 논할 때에 “兩尺各有陰陽 水火互相生化하니 當于二臟中에 分各陰陽虛實하여 求其屬而平之니 若左尺脈이 虛弱而細數者는 是左腎之眞陰不足也니 用六味丸이오 右尺脈이 遲輕或沈細而數欲絶者는 是命門之相火不足也니 用八味丸이라”하여 左腎은 主水藏眞陰하고 右命門은 主火而寓元陽한다는 基本的인 主張을 提起하였다. 그는 “無陽則陰無以生하고 無陰則陽無所化라”(『保嬰撮要·小便不通』)하는 辨證觀點을 가지고 分析하여 腎과 命門의 陰陽 및 水火는 完全히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常有餘 常不足” 같은 狀況도 있을 수가 없으며, 오직 서로 相補 相助하고 相互生化하는 關係라고 하였다. 따라서 薛己는 항상 六味, 八味로써 腎·命門의 陰陽 水火를 調治하였는데 이는 錢乙의 腎陰虛에 대한 論述을 吸收함과 동시에 錢乙의 腎陽虛에 대한 不足點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는 勞瘵 咳嗽 咯血·吐血의 치료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보였으니 “設若腎陰精不足하여 陽無所化하여 虛火妄動 所致前證者는 用六味地黃丸補之니 若腎經陽氣燥熱하여 陰無以生하여 虛火內動而致前證者는 宜用八味地黃丸補之니 使陽旺則陰生”¹⁶⁾이라 하였다. 따라서 薛己는 腎陰을 치료하는데 丹溪와 달랐으니 知母 黃柏의 苦寒之劑로 瀉火하는 것을 피하고 腎中 陰陽의 生化를 중시하여 藥은 오히려 溫補를 하였다.

脾腎虧損의 病症은 혹 脾土가 久虛하여 腎虧에 이르거나 또는 腎虧로 인해 土를 生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土虛가 위주인 경우에는 “補腎不如補脾”의 說을 주장하였으나 腎虛가 重한 때에는 또

한 그 腎을 補益하니, 만약 脾腎이 虛寒하면 마땅히 四神丸을 쓰고 만약 脾腎이 虛脫하면 六君子湯에 乾薑 桂를 加하여 사용하되 효과가 없으면 급히 命門火를 補하여 脾土를 生하여야 하니 항상 八味丸으로 치료하여 補火함으로써 土를 生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薛氏는 補脾가 효과가 없으면 급히 그 母를 補한다는 원칙하에 아울러 脾土本臟의 치료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항상 脾腎同治의 法을 사용하여 각 방면에 걸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補腎함으로서 土를 生하게 것이니 『薛氏醫案』中에는 아침에는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을 복용하여 元氣를 培補하고 저녁에는 六味丸, 八味丸, 四神丸으로 腎中水火를 調治한 예가 적지 않다. 이렇게 薛己가 脾腎의 關係를 論술하는 면에서 조목조목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이치를 분석함이 분명하였다. 薛己가 脾와 腎의 生理·病理를 聯關시켜 分析하는 것도 그의 學術思想에서 比較的 突出한 한 方面이라 할 수가 있다. 즉 生理面에 있어서 脾土는 精微를 化生하여 腎·命門을 滋養하고 反對로 腎·命門도 脾土에 대하여 溫煦作用을 한다는 것이다. 病理面에 있어서는 脾土가 久虛하게 되면 腎虛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腎虛虧損하여 不能生土하면 역시 脾虛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臨床에서는 脾腎虧損의 病證이 흔히 보이는 것이다. 이상의 認識을 바탕으로 薛己는 治療에 있어서 脾腎同治法을 자주 使用하였는데, 예를 들면 脾腎虛寒에는 四神丸을 쓰고, 脾腎虛脫에는 六君子湯에 乾薑과 肉桂를 加味하여 쓰는데 急하지 않으면 八味丸으로 補火生土하도록 하였다. 혹은 아침에는 補中益氣湯 등을 服用하여 脾胃를 培補하고 저녁에는 六味丸이나 八味丸 등으로 肝腎을 滋補하는 方法도 使用하였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脾胃를 根本으로 삼는 사상의 영향으로 “補腎不若補脾”의 學說을 제시했으나 治療時에는 變通하여 하나의 틀에 구속되지 않았으니, 補脾 및 脾腎의 同治의 治法은 後世 醫家들이 脾腎을 論治함에 이 法을 많이 應用하였고, 李中梓의 先天·後天의 說에도 또한 이 영향이 없

16) 明醫雜著, 상계서, p. 18.

지 않다.

(2) “溫補三法”을 잘 使用함

明代의 醫家中에는 金元의 遺風을 이어 받은 者들이 있어 或은 寒涼藥을 써서 攻下를 하거나 或은 知柏을 濫用하여 降火를 하여 生氣를 克伐하는 傾向이 있었는데, 薛己는 이와 같은 流弊에 대하여 일찍이 “世以脾虛를 誤爲腎虛하야 輒用黃柏知母之類면 反傷胃中生氣하야 害人多亦이라”(『內科摘要·飲食勞倦虧損元氣等症』)고 質疑한 바가 있었다. 그가 寒涼을 使用하는 것을 全力으로 反對하고 溫補하는 것을 主張하여 偏溫한 藥物들을 使用하였기에 결국 溫補로 이르게 되었다. 『外科發揮』등 여덟 가지 著書에 收錄된 2867例의 治驗病例을 分析하여 보면, 그 중에 單純하게 溫補方劑를 使用한 治驗病例가 1224例로 43.31%를 占하며, 溫補方劑에 다른 方藥을 加하여 治驗한 病例가 716例로 21.49%를 占하고 있다. 이는 薛己가 臨床에서 確實하게 溫補를 잘 使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治療效果도 매우 顯著하였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그는 溫補를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骨傷科 등에 두루 使用하였고, 具體적인 方法은 醫案중에서 紹介하곤 하였다. 薛己의 主要한 溫補方法을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① 朝夕補法

이것은 薛己가 人體의 朝夕 陰陽變化의 理論에 根據하여 創製하고 使用한 溫補方法이다. 그는 일부 疾病에 있어서 “若朝寬暮急은 屬陰虛오 暮寬朝急은 屬陽虛오 朝暮皆急은 陰陽俱虛也라”(『癘瘍機要·變證治法』)고 說明하였는데 一定한 根據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는 一日而主外하나니 平旦에 人氣生하고 日中而陽氣隆하고 日西而陽氣已虛하야 氣門乃閉”¹⁷⁾라고 하였듯이 하루 중에 있어서 人身의 陽氣의 消長進退는 晝夜晨昏의 變化와 相應하는 것이다. 生理的 狀況에 처한 人體는 “陰平陽秘”에 該當되고, 病理的 狀況에 처한 人體는 陰陽이 各

各 偏虛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薛己는 “陽虛者는 朝用六君子湯하고 夕用加減腎氣丸하며 陰虛者는 朝用四物湯加參朮하고 夕用加減腎氣丸하며 眞陰虛者는 朝用八味地黃丸하고 夕用補中益氣湯”(『癘瘍機要·變證治法』)이라는 治療方法을 採用하였다. 이와 같은 見解를 바탕으로 氣血俱虛의 患者에 대해서도 朝夕補法을 採用하였다. 예를 들면 “一膏粱之客 陰囊腫脹 小便不利”의 病案에 대하여 여러모로 治療하여 完治시켰는데, 다시 過勞로 發熱이 생기자 患者가 스스로 四物, 黃柏, 知母之類를 服用하여 결국 虛症이 모두 나타나고 瘡口가 크게 벌어지게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薛己는 이것이 五臟氣血俱虛에 屬한 病證으로 診斷하고 아침에는 補中益氣湯을 使用하고 저녁에는 六君子湯에 當歸를 加하여 使用하는데 各各 50餘劑를 服用하니 瘡口가 漸次 收斂되었다. 다시 六味丸으로 調補하여 完快하게 되었다(『外科樞要·卷三·論囊癰』). 비록 朝夕補法의 理論과 方法이 아직 完璧하지는 못하지만 역시 科學的인 價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急補法

急補法은 薛己가 急症을 處理하는 應急處置에 속한 方法이다. 여기에서는 그가 자주 使用한 方藥을 中心으로 그가 急補法을 應用한 經驗을 要約해보도록 하겠다.

八味丸의 適用範圍: 發熱夜重, 熱從脚起, 口乾舌燥, 小便頻數, 淋漓作痛, 惡寒發熱이 보이면 이는 無根虛火로서 急히 八味丸을 使用하여 引火歸元하여 그 根本을 堅固하게 한다. 寒涼瀉火之劑를 誤用한데다가 다시 脾胃를 傷하여 胸腹虛痞, 小便不利, 脘腹膨脹, 手足逆冷이 보이면 이는 三陰虧損之虛寒證에 屬하니 急히 八味丸으로 命門之火와 虛寒을 溫補해야 한다. 五更泄瀉에 四神丸을 服用했는데도 效果를 보지 못하고 反復發作하는 것은 火不生土로 因한 것으로 急히 八味丸으로 命門의 火를 補하여 脾土를 生하게 해야 한다. 만약 脈微細에 手足이 冷하거나 혹은 喘促을 兼하면 이는 命門火衰와 腎不納氣로 因한 것이므로 急히 八味丸으로 補腎納氣해야 한다. 發熱에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16.

形體惡寒이 보이면 이는 陽氣虛寒으로 인한 것으로 急히 八味丸으로 溫補其寒해야 한다.

獨蔘湯의 適用範圍: 瘡瘍에 發熱汗不止는 氣虛에 屬한 것인데 急히 獨蔘湯을 써야 한다. 芤失血過多하여 發熱作滿 等症이 보이면 그 脈이 어떠한가를 勿論하고 急히 獨蔘湯으로 氣를 補해야 한다.

蔘附湯의 適用範圍: 瘡瘍이 克伐을 받거나 혹은 房事를 犯했거나 혹은 膿血이 大泄했거나 혹은 吐瀉한 후에 無根虛火之假熱證(예를 들면 發熱頭痛, 惡寒瘧寒, 揚手擲足, 汗出如水, 腰背反張, 鄭聲不絕 等症이 보임)이 나타나거나 혹은 陽氣脫陷之眞寒證(예를 들면 畏寒頭痛, 耳目目蒙, 玉莖短縮, 冷汗時出, 或厥冷身痛, 或咬舌嚼唇, 舌根強硬 等症이 보임)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脈과 瘡을 勿論하고 急히 蔘附湯으로 補해야 한다.

이 외에 瘡瘍에 걸린 患者가 泄瀉가 나서 그 칠 줄을 모르고 뜨거운 국물을 마셔도 뜨거움을 못 느끼며 手足이 모두 冷한 경우에는 陽氣虛寒에 屬하니 急히 四君子湯에 桂, 附를 加하여 쓰거나 혹은 異功散에 薑, 桂, 附를 加하여 溫陽散寒해야 한다.

③ 純補法

李東垣은 “晝發熱而夜安靜은 是陽氣自旺於陽分也오 晝安靜而夜發熱은 是陽氣下陷於陰中也오 如晝夜俱發熱者는 重陽無陰也니 當峻補其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薛己는 여기에서 啓發을 받아 純補法을 만들어 陽氣의 偏頗가 比較的 甚한 病證을 治療하였다. 그중 重陽無陰證의 경우에는 純補其陰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晝夜俱發熱하는 경우는 重陽無陰에 屬한다고 하여 자주 四物湯과 六味丸으로 純補其陰하였고, 發熱面赤한데다 脈大虛弱의 경우는 陰虛血虛에 屬한다고 하여 當歸補血湯으로 補하였다. 그리고 重陰無陽證에 대해서는 純補其陽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瘡瘍微腫痛하거나 혹은 色暗不痛하고 脈洪大按之微細軟弱한 경우는 純陰無陽에 屬하니 마땅히 回陽湯(乾薑, 附子, 人蔘, 白朮, 黃芪, 當歸, 陳皮, 灸甘草, 柴胡, 升麻)으로 純補其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瘡瘍이 膿多而清하고 혹은 瘀肉不腐하고 潰而不斂하며 脈은 大而無力 혹은 澁微한 경우는 氣血俱虛에 屬하여 八珍湯으로 氣血을 雙補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 陽氣自旺한 者는 補中益氣湯을 쓰고 陽氣陷於陰者는 四物二連湯(當歸, 川芎, 芍藥, 熟地黃, 胡黃蓮, 宜黃連)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總括하여 보면 薛己의 溫補에 關한 理論과 方法은 獨特한 面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는 治病時에 “多用古方”(『四庫全書』의 評語)하였고, “常用者不過十餘方”하였기에 새로 創製한 溫補 名方은 比較的 적은 편이었다. 그가 溫補法을 잘 使用함으로써 當時에 寒涼攻伐을 濫用하는 弊端은 어느 정도 바로잡혔지만 그의 藥物使用 역시 溫燥에 치우친 面이 있는데 趙獻可와 張景岳이 다시 이것을 進一步로 發揮함으로써 補藥을 濫用하는 流弊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은 薛己의 溫補法의 學術的인 局限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正反 兩方面의 學術經驗은 모두 아주 所重한 것이므로 進一步로 研究할 價値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¹⁸⁾

6. 結 論

明나라 때의 著名한 醫家로 溫補派의 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薛己(1487~1559)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薛己는 世醫의 집안에서 태어나 儒學과 醫學을 공부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은 후 그를 대신하여 太醫院에 들어가 醫士가 되었으며 그 후 太醫院 吏目, 南京太醫院 院判, 院使 등을 歷任하고 1540년(44세)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患者의 治療와 著述에 전념하였다.

18) 李林, 李玉玲編著, 首創溫補의 薛己, 北京, 中國科技出版社, 1990, pp. 13~18.

2. 薛己의 著作은 대부분의 내용이 醫案形式으로 쓰여 졌으며 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科, 鍼灸科, 齒科, 眼科, 整形外科, 本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本人이 직접 著述한 것은 이 『內科摘要』등을 위시하여 약 12種, 校注한 것이 『婦人大全良方』을 위시하여 8種, 校勘한 醫書가 약 6種등 모두 대략 26種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薛己는 『內經』, 『難經』과 張元素, 金元四大家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四大家中에서도 東垣과 丹溪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았으며 이외에 그가 校注한 醫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群書를 博覽하고 果敢하게 實踐하고 資料를 廣收하고 總結을 잘하여 뛰어난 醫家가 되었다.
 4. 薛己는 李東垣의 『脾胃論』의 影響을 받아 脾胃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며 脾統血의 理論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李東垣의 學說과 다른 점은 火衰土弱의 虛寒證을 치료하는데 補火生土를 主張하였고 脾와 腎의 生理作用을 聯關시켜 脾土는 精微를 化生시켜 腎, 命門을 滋養하고 反對로 腎, 命門도 脾土에 대하여 溫煦作用을 하며 病理面에서 脾土가 久虛하면 腎虛를 일으킬 수 있고 腎虛하면 不能生土하여 역시 脾虛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薛己는 明代의 醫家들이 金元의 遺風을 이어 받아 寒涼藥을 써서 攻下하거나 知柏을 濫用하여 降火하여 生氣를 克伐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反對하고 偏溫한 藥物로 調補할 것을 主張하였는데 그가 常用한 處方으로는 補中益氣湯, 四物湯, 四君子湯, 六君子湯, 獨蔘湯, 蔘附湯, 六味丸, 八味丸, 腎氣丸, 回陽湯, 當歸補血湯 등 前人的 處方이었다.
- 社, 1992.
 3. 孟雄在等譯,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大成醫學社, 2001.
 4. 薛己, 薛氏醫案選, 上冊, 外科樞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薛己, 薛氏醫案選, 下冊, 內科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盛維忠主編, 薛立齊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7. 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8. 王綸撰 薛己注, 明醫雜著, 中國, 江蘇科技出版社, 1985.
 9. 李林, 李玉玲編著, 首創溫補的薛己, 北京, 中國科技出版社, 1990.
 10.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參考文獻

1. 裘沛然, 嚴世芸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中國, 上海科技出版社, 1984.
2. 裘沛然, 丁光迪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